

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여름철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여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식중독 예방컨설팅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대상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생고기와 냉면 등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42개소다. 평가표의 각 점검항목에 따라 관련 서류와 기록 확인, 현장평가(육안, 측정 장비 활용) 등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확인(영업신고증, 건강진단 등 비치 여부) △조리과정별 위생관리상태 확인(식재료 입고, 해동, 조리 등) △조리단계별 오염 가능성 확인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특히 종사자의 위생 인식개선 유도를 위해 칼, 도마, 냉장고 손잡이 등의 세균오염도(ATP) 측정을 통해 종사자가 실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점검 정비기술 강화

정읍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임대용 농기계 합동 수리·점검으로 정비기술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합동 수리·점검은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를 관리하고, 다양하고 정밀해지는 농기계의 정비 기술을 향상시켜 농업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대사업소 직원들은 본소, 북부, 서남, 동부, 서부 5개의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임대농기계 중에서 중대 고장이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예취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15종 70여대를 수리하고, 기종별 주요 고장원인과 효율적인 점검 방법을 공유하며 정비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기계 점검·정비 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역전지구대 이전 필요성 강조

## 이학수 정읍시장,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사 국·공유지 상호교환 논의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0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개최한 '제3차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사'에 참석해 역전지구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공유지 상호교환을 논의했다.

이번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국유재산 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 외 3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이학수 시장 외 4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시장은 "역전지구대 이전사업은 정읍시민, 정읍경찰서, 정읍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역전지구대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지구대가 정읍역 정면을 가로막고 있어 관광객들이 정읍역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업



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읍역 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전지구대의 이전이 필수요소"라며 국유지인 역전지구대와 사유지인 이전 부지의 상호교환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김윤상 차관은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읍역역전지구대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여름 휴가철 '고향사랑 기부 인증 이벤트'

## 고향사랑기부시 추천통해 3만원 상당 관광체험형 답례품 등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경험 이벤트를 연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역으로 고향사랑기부부를 하신 분들이 여름휴가까지 고향서 보낼 수 있도록 답례품에 체험형 상품을 추가한다. 이벤트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창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사이버 고향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고향 군민 등록 후 이벤트 게시판에 받고싶은 상품을 댓글로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고창군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

자 중 50명에게 고향수박, 풍천장어와 감성음악 사이닝 고향 관타미켓 하전·장호 어촌마을 체험 이용권, 고창읍성 도예체험 이용권 선운사템플스테이체험 할인권, 출판카트체험 등의 관광체험형 답례품 등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고창에 기부도 하고 사이버 고향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아 고향에서 활력 넘치는 휴가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군민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사이버고창군민이 되면 상하늘원 먹거리 체험교실, 만돌·하전·장호 어촌체험마을 등 고창군에서 인기 있는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집 카페 등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연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는 각각 1985년 12월, 1988년 9월로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원전 사업자는 계속운전으로 인한 한빛 1·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안군은 보안, 변산 진서, 출포 위

도 5개면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이들 5개면은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의 의견수렴대상 지역이며, 부안군에서는 공청회 개최 연기를 결정할 이유를 크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불안, △설계적 측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해명 필요, △공청회 중지 가처분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음 등으로 밝혔다.

군은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하고, 지난 6월 12일 규모 4.8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한 이래 크고 작은

# 부안군, 비건식품 '월드한 포부만두' 시식행사 개최



부안군은 지난 12일 백산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안형 비건식품 '월드한 포부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부안군의 함초로 만든 비건만두를 먹으며 든든한 점심시간을 가졌다.

갯벌에 자생하며 자라는 염생식물인 함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비단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과 효소를 흡수하여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해 체내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시식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비건식품을 처음 접해보서 생소했지만 기존에 먹던 만두와 비교해도 맛 차이가 크게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며 "건강에도 좋고 지구환경에도 좋은 비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좋다"고 말했다.

군은 식품업계 ESG 확산 및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대체식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안형 비건식품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염생식물을 활용한 부안형 비건식품 상품화를 추진해 올해 '월드한 포부만두'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포부만두가 10대들한테도 인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 원료를 부안의 농축산물로 활용해 농가 소득원 추가 창출을 도모하고 푸드테크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며 "건강에도 좋고 지구환경에도 좋은 비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좋다"고 말했다. /부안=김익진 기자

# 고창군,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고창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흥덕면 송암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비 최대 15억원 포함 총 사업비 약 20억원이 확보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흥덕면 송암마을은 전체 주택 중 79%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이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흥덕면 송암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여 더 좋은 고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고창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용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탄면 평원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로 1.225필지 약 62만9,309㎡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필지별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입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합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지적재조사 입시경계점은 담당·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입시경계 발목을 표시한 것이다.

경계조정 협의일정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뤄진다.

군은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